

# 開化期 小說의 장르的 問題

金 俊 五\*

## 차 례

- |              |             |
|--------------|-------------|
| 1. 분류 양상     | 4. 政治小說     |
| 2. 討論小說의 劇樣式 | 5. 新小說과 모방론 |
| 3. 역사·전기소설   | 6. 장르혼합     |

개화기 소설은 개화기 시가와 마찬가지로 화제·문체·구성 등 형식과 내용의 여러 면에서 그 이전의 고대소설과 다른 장르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런 변화에서 개화기 소설은 한 역사적 장르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물론 이것은 개화기 소설이 고대소설의 완전한 반대장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개화기 소설은 ‘과도기적’소설 형태라는 명칭이 부여될 만큼<sup>1)</sup> 고대소설의 요소들(대개 부정적 평가를 받는)이 잔존해 있다. 이런 신·구의 요소들만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장르의 요소들도 공존해 있다. 비록 ‘소설’이란 명칭을 달고 있더라도<sup>2)</sup> 개화기 소설작품 중 소설이란 서사장르의 범주에 넣기 곤란한 작품들이 많은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므로 개화기 소설도 장르비평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까다로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개화기 소설의 연구사도 장구하다. 그러나 본격적 장르비평은 사실상 70년대부터 나타나고 있다.

\* 釜山大學校 人文大學 國語國文學科 教授

- 1) 金台俊, 『朝鮮小說史』(學藝史, 1939)와 林和, 『新文學史』등 초기 연구서에서 이미 개화기 소설의 문학사적 의의로 내세우고 있다.
- 2) 개화기 작품은 작품표지에 정치소설·연극소설·토론소설·과학소설·가정소설·애원소설·최근소설 등의 명칭들을 달고 있다.

## 1. 분류 양상 分類 양相 分類 양相 分類 양相

개화기 소설은 대체로 이인적을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로 양분되고 있다. 이것은 단지 문학사적인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작품의 내용과 형식의 차이에서 타당성을 띠고 있다. 이것은 초기연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다.

安廓은 『朝鮮文學史』(1922)에서 개화기 소설을 크게 역사소설과 신소설로 양분한다.<sup>3)</sup> 그가 말한 역사소설에는 중국과 일본의 정치소설(서양의 역사적 인물의 업적을 다룬)을 번역·번안한 것과 신채호의 창작이 포괄되어 있다. 개화기 소설의 출발점이 되는 이 역사소설을 그러나 그는 신문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정치사상과 민족사상을 다룬 점 외에는 고대소설의 권선징악적 관점과 한문학의 낡은 문체를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것이 그 근거가 된다. 그 대신 이인적의 신소설이 고대소설의 권선징악적 태도를 벗어나고 작중인물의 성격과 심리를 묘사한 점은 고대소설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양상이라 하여 신문학의 진정한 시발점이 된다고 기술한다. 그의 이런 2분법은 목적의식에 종속된 소설과 자율성의 소설이라는 기능면의 의의를 지니고 있다.

이런 2분법은 金台俊의 『朝鮮小說史』(1930)에도 그대로 연속된다.<sup>4)</sup> 그는 사회·역사적 비평관점에서 개화기 소설을 시민문학으로 규정하고 이인적이전의 목적의식을 가진 역사소설과 이후의 '純文學'으로서의 신소설로 2분한다. 그는 「雉岳山」을 분석하는 자리에서 신소설이 언문일치의 구어체로 당대 시대상황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은 소설이라면 단순한 오락적 도구로서 신화 전설류로 생각하던 당대의 소설장르 인식을 변화시킨 점에서 하나의 획기적 의의를 지닌다고 했다. 이처럼 그는 개화기에 고대소설이 중국식 '章回小說'로 그 형식으로 바뀐 역사소설 뿐만 아니라 당대 신화·전설·민담과 신문 3면 기사거리까지 거의 장르적 인식없이 소설이란

3) 安廓, 『朝鮮文學史』(韓一書店, 1922), pp. 124~125 참조.

4) pp. 234~247 참조. 여기서 텍스트는 1939년 學藝社 발행의 영인본이다.

명칭으로 나뉘던 작품들과도 이런 신소설을 대비시킨다. 그러나 그는 신소설을 구조설 곧 고대소설에서 근대적 소설로 변천해 가는 과도기적 소설 형태로 규정한다.

이색적으로 이인직의 「雉岳山」을 신소설의 효시로 내세운<sup>5)</sup> 林和의 『新文學史』에서는 개화기 소설이 정치소설과 신소설로 2분되고 있다. 安廓·金台俊의 역사소설의 명칭이 정치소설로 바뀐 것이다. 그는 이 정치소설을 신문에 연재된 ‘章回小說’과 (그도 김태준처럼 이것을 명·칭의 회장체소설의 모방으로 처리한다), 외국의 역사와 영웅전기를 번역·번안한 것과 신채호의 한국 영웅전기와 순전히 창작적인 것의 여러 유형으로 분류한다. 그는 안국선의 「禽獸會議錄」이 정치적 목적을 노골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순연한 소설체의 구분과 유모어 풍자에 의하여 예술성을 갖춘 최고의 정치소설로 평가한다. 그는 이인직의 신소설이 정치소설의 공리적 목적 의식에서 벗어난 점과 무엇보다 그 이전의 傳記小說·軍談·염정소설과 다른 새로운 소설 양식을 창안한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 이런 신소설을 김태준처럼 과도기의 문학으로 규정한 점과 개화기의 필연적 산물로 정치소설을 내세운 점은 주목할만한 것이다.

조연현은 『韓國新文學考』(1966)에서 개화기 신문에 연재된 일부 무서명 소설에 주목한다.<sup>6)</sup> 무서명소설은 전환기의 상황을 소설로 구조화한 창작이 아니라 이미 존재한 전래적, 외래적 전설·민담·우화 등의 설화를 요약한 것이고 ‘소설’이란 명칭에도 불구하고 소설의 장르적 본질에 대한 인식없이 나뉘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는 소설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와 달리 이인직의 「血의 淚」는 새로운 소설 곧 소설의 장르인식에서 나온 시형적 산물로 최초의 서명소설이다. 이런 근거에서 이 작품은 최초의 신소설이 된다는 것이다. 무서명소설을 소설이 아닌 신문 ‘기사’의 한 종류로

5) 이 작품은 上·下 두 편으로 간행되었는데 上은 이인직의 이름으로 1908년 唯讀書館에서 나왔고 下는 金敎濟의 이름으로 1911년 東洋書院에서 나온 합작소설로 기이하게 ‘演劇新小說’이란 명칭이 붙어 있다. 임화는 그의 『新文學史』 3장에서 「雉岳山」이 이인직이 주필로 있던 萬歲報에 발표한 작품으로 1905~1907년간의 소작이라 하여 신소설의 효시로 삼고 있다.

6) 『韓國新文學考』(文化堂, 1966), pp. 51~76 참조.

처리한 점은 주목되지만 신소설 형성과정의 기술에는 역사소설 또는 정치소설이 배제되어 있어 그의 비평은 소위 선택적 오류의 한계를 모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선행연구들은 한국 소설사의 전개과정에서 개화기 소설의 특징적 양상을 고대소설과 비교·대조한 것으로 장르의 본질에 대한 연구는 거의 결여되어 있다. 보다 본격적인 장르비평은 70년대에 접어들어 김윤식·이재선·조동일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개화기 문학에 관한 한 김윤식의 장르비평은 매우 역설적이다. 개화기 시가는 개화와 척사라는 시대적 소명을 지나치리만큼 충실히 수행했기 때문에 미처 문학장르로 정립되지 못한 반면(이 경우 개화기 시가의 리듬은 그 반복의 본질에 의해 기억작용에 도움을 주어 개화지식의 효과적 전달 수단이다), 개화기 소설은 소설장르 본래의 ‘頑固性’으로 해서 개화기의 소명 의식에 좀처럼 붕괴되지 않고 오히려 고대 소설로의 후퇴양상을 보여 주기 때문에 하나의 문학장르로 성립되어 있다는 것이다.<sup>7)</sup> 흥미분위와 선악판단의 고대소설적 요소를 탈피하지 못했다는 근거로 그는 신소설의 ‘新’의 의미를 부정한다. 그러나 시대상황에 좀처럼 상응하지 못한 소설 장르의 고유성이 아니라 개화기 소설에 국한된 특수한 성격이거나 다른 장르 곧 개화기 시가와와의 상대적 차이에 지나지 않으며 이것은 근본적으로 당대의 장르인식의 문제인 것이다.

그는 〈開化期 文學樣式的 問題點〉(1973)에서 개화기 산문을 논설양식, 번안·번역양식, 개화기 창작소설, 연설의 산문화로 4분한다.<sup>8)</sup> 여기서 ‘양식’이란 장르개념이 아니라 장르로 정착되기 이전의 유동상태를 가리킨 것이다.<sup>9)</sup> 사실 운문과 산문은 오늘날 그 효력을 상실한 장르개념이다. 그가 소설 이외의 다른 산문형태를 개화기의 문학으로 설정한 것은

7) 그는 김현과 공저한 『한국문학사』(민음사, 1973)와 〈韓國文學研究에 있어서의 장르의 問題點〉(韓國文學, 74년 7월호)등 일련의 개화기 문학 연구에서 일관되게 이런 역설적 장르론을 펼치고 있다.

8) 東亞文化 제12집(서울文理大 東亞文化研究所)

9) 앞의 〈韓國文學研究에 있어서의 장르의 問題點〉

문학관의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며 장르비평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그의 철저한 사회·역사적 비평태도의 산물인 장르전개의 범칙성이다. 이것은 장르선택이 언제나 사회·역사적 상황과 상응한다는 상동론이다. 그는 개화기에 있어서 서정·서사·극의 장르등과 상황과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첫째 開化期人間들이 그들 性格의 描出方法으로 줄거리있는 完結된 性格쪽을 택할 경우 그것은 散文樣式이 된다. 둘째 이와 달리 行爲에는 나아가지 않고 自己를 둘러싼 生活情勢를 體驗하는 쪽을 택할 땐 律文樣式이 될 수 있다는 假說을 세워볼 수 있다. 셋째 以上 兩者가 混交된 것으로 演劇樣式을 세워볼 수 있다.

여기서 율문과 산문은 서정과 서사를 가리킨 용어다.<sup>10)</sup> 그에 의하면 개화기 소설이 고대소설의 구조적 견고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것은 개화기의 변형기에도 불구하고 아직 구시대의 낡은 도덕률 곧 가부장제의 엄격성이 지배하고 있는 당대 사회구조의 견고성에 상응한 것이다. 따라서 개화기 소설은 개화사상에 상응하는 완결된 형식의 성격 묘출방식이 아니라 조선조 사회구조에 있어 인간성격의 완결파악력을 지닌 장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개화사상은 사회구조와 다른, 완전히 유리된 이질적이며 '호기심의 차원'으로 한갓 '생활정세로서의 포말적 현상'에 지나지 않으므로 개화기에는 생의 순간적 부동적 성격을 묘출하는 율문양식(곧 서정장르)이 선택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에게 개화기시가는 상황에 민감하여 장르의 본질에서 쉽게 이탈하는 유연성 때문에 개화사상의 전달에 충실했지만 장르로 정착되지 못한 상태의 율문양식이고, 개화기 소설은 장르의 견고성 때문에 상황에 붕괴되지 않은, 한 장르로 정립되어 있었던 대신 구시대의 문학장르다. 이런 근거에서 결국 그는 개화기 문학을 매우

10) 그는 앞의 <韓國文學研究에 있어서 장르의 問題點>과 <植民地 時代의 虛無主義와 장르選擇>(文學思想, 73년 5월호); 『韓國近代文學樣式論攷』(亞細亞出版社, 1980) 등 다른 글에서는 서정과 서사라는 장르류 명칭을 쓰고 있다.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런 그의 장르비평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비록 치모프예브·루카치 등 서구이론에 의존하고 있지만 상동론의 본격적 장르이론으로 개화기 문학을 해석·평가한 것은 커다란 의의를 지닌 것이다.

이재선의 <開化期 敘事文學의 두 類型>(1975)과<sup>11)</sup> 이를 수정한 <開化期 敘事文學의 세 類型>(1976)은<sup>12)</sup> 노트와 같은 인상을 줄 만큼 짙막한 비평이지만 개화기 소설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장르비평으로 주목된다. 여기서 그는 개화기 소설을 경험적 서사체와 허구적 서사체, 그리고 戲畫寓意的 敘事體의 세 가지로 분류한다.

앞의 글에서 개화기 서사문학 형태를 경험적 서사체와 허구적 서사체로 나누는 것은 선행 연구의 2분법과 일치한다. 이것은 함부르거(Hamburger)의 두 가지 서사형태, 곧 역사적·일상적 서사와 모방적 서사의 개념을 연상시킨다.<sup>13)</sup> 함부르거에 의하면 전자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나 그렇게 믿어지는 사건에 관한 정확하거나 부정확한 진술을 한 형태로 전기·보고문 같은 것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러나 후자는 일어난 사건의 진실성 여부는 관계 없이 허구적 인물이 창조되는 서사형태로 서사장르와 극장르가 여기에 포함된다.

이재선의 경험적 서사체도 ‘일어날 수 있는 것’ 보다 ‘이미 일어난 것’ 곧 실재한 인물의 생과 사건에 관한 묘사와 진술이기 때문에 사실보증적 임격성을 지닌다. 그는 이 서사체를 역사적 서사체라고도 부르면서 ‘역사 전기문학’이라는 정식 명칭을 부여한다. 말하자면 선행연구의 역사소설 또는 정치소설에 해당하는 작품들이 역사전기문학이라는 새로운 명칭을 받은 것이다. 허구적 서사체는 허구적 재현이며 경험주의의 구속으로부터 자유롭고자 하는 형태이고 전자에 비해서 효용론적 목적의식이 강하게 노

11) 국어국문학, 68·69 합병호(국어국문학회, 1975).

12) 韓國語文論叢, 『又村姜馥樹博士 回甲記念論文集』(형설출판사, 1976), 이 글은 앞의 <開化期 敘事文學의 두 類型>에 세 번째 유형을 첨가한 것이다.

13) Käte Hamburger, Die Logik der Dichtung(Stuttgart 1957), p.21 그리고 Paul Hernadi의 Beyond Genre, pp.63, Rolf Tarot, Structure and Reception(Strelka권 Theories of Literary Genre) 참조.

출되지 않는, 예술적 자율성을 어느 정도 확보한 것이다.

두번째 글에서 첨가된 또 하나의 유형으로서 戲畫寓意的 서사체는 비판적인 육설과 해학과 풍자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소경과 앓은뱅이의 문답」, 「車夫誤解」의 무서명소설과 안국선의 「禽獸會議錄」이 여기에 귀속된다. 그에 의하면 이것은 서사적 성격과 극적 성격을 혼합한 원초적 희곡 형태로서 앞의 두 유형의 절충형태다. 왜냐하면 이것은 개화기 특수성을 반영하는 대담과 희의를 구성원리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교적 짧은 형식의 단형 서사체로서의 이 세번째 유형을 그는 교훈 문학의 갈래로 처리한다.

개화기 소설을 이처럼 3분한 것은 모방론과 표현론, 구조론, 효용론의 어느 관점에서든 타당한 것이다. 특히 세번째 유형이 짐승과 ‘아이러닉 모드’의 인간을 원용했다는 기술은 N. 프라이의 양식론을 시사한 것으로 장르비평의 또 하나의 관점을 보인점에서 주목된다.<sup>14)</sup> 그리고 첫째 유형은 보고적 요약성의 우세와 작자 또는 서술자의 논평과 간섭이 강화되어 있는 반면 둘째 유형은 장면적 묘사가 확대되고 서술자의 간섭과 논평이 약화되어 있다는 기술은 소설의 유형을 구분하는 한 기준인 視點의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이것은 오늘날 구조론적 장르비평의 가장 핵심적 개념이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한국 소설의 전통을 규명하는 개념이기도하다.

그의 『韓國開化期小說研究』(1972)는 자이들러·몰러·클라인·카이저 등 독일 문예학을 비롯한 보다 풍부한 서구 이론에 의하여 개화기 소설을 분석·평가하고 있다. 여기서 그는 서사의 시간양상에 의해서 앞서 말한 세번째 유형의 단형서사체의 본질적 특징을 규명한다.<sup>15)</sup> 그는 자이들러의 2분법인 단형서사와 대형서사의 개념을 인용한다. 소서사형식과 대서사형

14) N. 프라이 mode론은 주인공의 능력과 환경에 따른 문학의 분류로 아이러닉 모드란 우리보다 훨씬 못한 인간과 환경을 다룬 풍자적 문학이다.

Anatomy of Criticism(입철규역, 한길사, 1982), pp.49~51.

15) 『韓國開化期小說研究』(一潮閣, 1972), pp.264~270 참조.

식이 양적 차이를 기준으로 분류되는 것은 일반적 현상이다. 물론 이 경우 양적 차이에는 이 두 형식의 본질적 특징도 포괄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는 소위 생의 총체성이란 기준으로 두 형식을 구분하고 여기에 두가지 시간 국면을 연결시킨다. 두 가지 시간국면이란 ‘이야기 시간’ erzählzeit과 ‘이야기된 시간’ erzählter zeit(여기서 그는 물러 Muiler의 용어를 인용한다.) 곧 서술의 시간과 허구의 시간이다.<sup>16)</sup> 전자는 읽기의 소요 시간, 외형적 페이지수, 곧 서술하는 시간이며 후자는 사건의 진행에 소요된 시간이다. 이 두 시간은 여러가지 성격차이로 평행선을 이루지 못하고, 불일치현상이 필연적으로 나타난다. 그는 이 시간의 길이로 소서사형식과 대서사형식을 구분하면서 개화기 소설의 경우 이 양자 사이에 엄청난 부조화를 빚고 있는 현상을 발견한다. 다시 말하면 개화기 소설은 서술의 시간에 비해 허구의 시간이 지나치게 긴 것이다.

이런 전제 밑에서 신소설은 단편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면서<sup>17)</sup> 이것을 단편소설 또는 단형소설, 講史傳 偉人傳 또는 諸國의 興亡史, 戲謔과 諷刺, 寓話의 빛으로 분류한다. 그에 의하면 소서사형식의 첫째 유형은 ‘單稱小說’(여기서 그는 클라인 Johannes Klein의 용어를 인용한다) 곧 서술시점의 변화가 없는 유형이다. 이것은 시점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額字小說’과 대비된다. 시점의 변화 유무는 그에게 소설을 분류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둘째 유형은 서구나 국내의 역사적 인물의 사적을 서술한 역사교과서나 소설화된 것(예컨대「이태리국아마치전」) 일부 公案類소설이 여기 해당된다. 세째는 해학 곧 익살로 여기에 조롱이나 비관이 가미되면 풍자가 되는 것으로 「車夫誤解」, 「소경과 안증방이 분담」, 「禽獸會議錄」이 여기 해당한다. 네째 유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사형식의 하나로서 대표적으로 앞의 「禽獸會議錄」이 그 좋은 예다. 그의 장르비평의 관점에서 또 하나의 관심을 끄는 것은 표제론이다.<sup>18)</sup> 그는 정주동

16) 이 두가지 시간 개념은 이 밖에 주제 sujet와 우화 fable(슈쿨로보스키), 쓰는 시간과 허구의 시간(토도로프)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17) 앞의 『韓國開化期小說研究』, pp. 265~267.

18) 앞의 책, pp. 91~92.

의 『古代小說論』에 나온 통계자료에서 傳, 記, 錄, 夢, 曲, 逢, 기타의 소설포제 중 주인공의 이름을 포제로 삼은 傳字類 소설이 압도적임을 중시하고 이것이 개화기소설에는 거의 소멸되고 ‘—의—’형, 공간형, 개화의식이 투사된 것 등 포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기술하면서 이 포제에 의해서도 구소설과 신소설을 구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작품 포제의 이름이 장르비평에서 중시되는 것은 이것이 장르의 ‘표지’ signal로서의 의의가 가지기 때문이다.<sup>19)</sup> 포제명은 커다란 환기력을 가지고 장르적 기능을 발휘한다. 말하자면 작품의 포제명자체가 장르의 종류를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포제명에 의하여 각 시대의 역사적 장르들을 추정할 수 있으며 따라서 독자에게 작품안내의 구실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인명포제, 단체명포제, 冒頭포제(작품의 앞머리 귀절을 포제로 삼은 것) 두 개 추상명사 연결형의 포제, 사건포제, 숫자로 끝난 포제, 공간포제, 인물역할포제 등 관습적이든 비관습적이든 포제의 연구는 장르연구의 한 방법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재선은 개화기 소설의 공통된 요소로 교훈적인 소설을 지적했다. 이것은 조동일에게 장르의 4분법체계로 정비된다. 그는 이미 〈歌辭의 장르規定〉(1969)에서 제4장르인 교술을 운문교술과 산문교술의 두 가지로 분류했다. 지금까지 딱연히 소설로 처리된 개화기 산문작품들의 일부가(좀 더 구체적으로 역사전기류 또는 정치소설) 서사장르가 아닌 산문교술로 다시 정리된다. 교술장르의 당위성과 실존성을 주장한 만큼 『한국문학통사』 4권(1986)에서 그는 개화기 산문을 교술과 서사로 2분하고 교술을 다시 역사전기문학, 풍유록제산문, 동물우화형식의 토론문, 시사토론문 등으로 세분한다.<sup>20)</sup> 개화기는 거화와 척사라는 두 가지 상반된 소명의식에서 여러 가지 주장이 팽팽한 토론으로 전개된 시기이므로 교술장르가 문학사에서 가장 활발히 전개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사장르인 소설도 교술적 소설이

19) 이 점에 대해서는 Alastair Fowler, *Kinds of Literature*(Clarendon Press, 1962)의 5장 *Generic Signals*에서 상세히 기술되고 있다.

20) 『한국문학통사』 4권(지식산업사, 1986), pp. 300~327.

된다는 것이다. 교술장르의 설정으로 개화기 문학의 특성과 의의가 보다 장르 본질면에서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문학의 영역이 합법적으로 확대되기에 이른 점은 획기적인 일이라 하겠다.

윤명구는 <開化期 敘事文學 장르>(1981)에서 개화기 소설을 종래의 2분법과 유사하게 구소설적 서사장르와 신소설 장르로 2분하고 이것을 다시 한문소설, 몽유록계 소설, 전기소설, 신소설로 4분한다.<sup>21)</sup> 그러나 몽유록계소설과 논설적 시사성이 강한 일부 신소설의 구조원리가 되어 있는 토론·문답의 기준보다 구소설적 요소인 환상구조의 기준을 중시한 것은 분류기준에 있어서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구조의 외적형식을 분류기준으로 삼았다면 토론소설도 중요한 한 유형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신소설 이전의 소설로 처리되고 있는 「소경과 안증방이 문답」 「車夫誤解」 「自由鐘」과 더불어 신소설의 한 유형으로 처리하면서 이 세 작품을 구소설적 서사장르에 귀속시킨 혼란(따라서 그의 ‘신소설’ 개념은 모호하다)을 빚고 있다.

민현기는 『한국근대소설론』(1984)에서 작가의 ‘태도의 유사성’이라는 표현론적 입장에서 개화기 소설을 3가지로 분류한다.<sup>22)</sup> 그는 이 세 태도를 각기 ‘諷刺的 상상력’과 ‘역사적 상상력’과 ‘假構的 상상력’이라고 기술한다. 그에 의하면 이런 태도에 따라 인물설정도 달라져 첫째 유형은 소외된 하층계급이 주인공이 되고 둘째 유형은 역사적 영웅이 주인공이 되고 셋째 유형은 젊은 개화인이 주인공이 된다. 첫째 유형과 둘째 유형은 공리성에 압도된 소설 유형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결국 이런 3분체제도 선행연구의 2분법과 일치한다. 그러나 작가의 태도라는 확고하고 일관된 분류기준을 내세운 것은 매우 공감어 된다.

이상의 분류양상에서 살펴 보았듯이 역사·전기류소설, 신소설, 개화기 소설의 가장 두드러진 주제적 양식으로서의 정치소설, 그리고 개화기 소설의 한 특수한 형태로서 토론소설이 장르비평의 중요한 테마가 되고 있

21) 『新文學과 시대의식』(새문사, 1981).

22) 『한국근대소설론』(계명대출판부, 1984), pp.7~9.

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런 유형들의 분석에서 개화기 소설의 변화를 발견할 수도 있다.

## 2. 討論小說의 劇樣式

개화기 소설의 장르변화 요인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개화기 시가처럼 장르혼합이다. 장르혼합의 원인에 의하여 나타난 가장 특이하면서도 개화기 소설의 본질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토론소설 또는 토론체 소설이다.<sup>23)</sup> 토론소설에서 토론과 대화(또는 문답)가 작품 전체의 외적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사적 요소가 약화되는 것은 필연적 현상이다. 따라서 토론소설에서 장르상의 문제가 되는 것은 조동일의 용어로 교술과 극의 비서사장르의 성격때문이다.

이재선은 「소경과안증방이 문답」을 분석하는 자리에서 소설적 구성보다는 “민속극형태”의 소박한 구성<sup>24)</sup>, 곧 소설의 서술적 방법이 갖는 요약 summary과 장면 scene의 구성양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장님과 앉은뱅이라는 두 작중인물의 “대화”만으로 이루어진 “연속극”이라고<sup>25)</sup> 이 작품을 규정하면서 「車夫誤解」와 함께 풍자적 ‘戲文小說’의 범주에 넣었다. 말하자면 토론소설은 서사와 극의 혼합장르라는 것이다. 요약과 장면의 서술방식을 기준으로 토론소설의 비서사성을 규명한 것은 매우 타당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서술방식은 서사 교유의 본질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김윤식은 「禽獸會議錄」을 분석하는 자리에서 그의 특유의 사회·역사적 비평입장으로 토론소설이 서사성을 획득하는 과정을 기술한

23) 이 소설류에 붙여진 용어는 戲文小說(이재선, 조남현, 홍일철), 對話體小說(송민호), 토론체소설(김중하), 演說의 散文化(김윤식)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해조의 「自由鍾」 단행본에는 토론소설이란 명칭이 그 본문 서두에 붙어 있다.

24) <韓末의新聞小說>『春秋文庫』(한국일보사, 1975) p. 46.

25) 앞의 韓國開化期『小說研究』, p. 61. 그리고 앞의 <開化期 敘事文學의 세 類型> 참조.

다.<sup>26)</sup> 그는 토론소설을 연설의 산문화라는 말로 기술한다. 그에 의하면 연설의 토론성이 연설의 급지라는 정치적 압력 때문에 내재화한 것이 연설의 산문화(곧 문자화)이며 이 내재화에 의하여 일인칭 관철지의 시점 도입, 지적 흥미, 소설적 구조를 획득할 수 있었다. 이것은 정치소설에 해당하는 몫을 한다는 점에서 그에 의하여 높이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토론소설은 그에게 소설장르에 편입되지 못하는 산문양식이다.

주중연도 토론소설을 소설장르로 인정하는데 매우 회의적이다. 그는 사상과 국권 의식을 일반대중에게 고취시키기 위하여 계획된 시사문답으로 풍자적 단막극이나 막간을 이용하여 연출되는 戯謔 schwank의 ‘자본’과 같다고 기술하여 장르 혼합성과 목적의식에 의한 특이한 비서사적 문학형태임을 주장한다.<sup>27)</sup>

가장 구체적으로 그리고 종합적으로 장르상의 문제를 다룬 것은 김중하의 <開化期 討論體 小說 研究>(1979)다.<sup>28)</sup> 그는 카이저의 이론을 원용하여 서사장르의 성립조건을 서술자·청자·서사내용의 3요소로 규정하고 서사장르의 변화는 이 3요소의 변화라는 전제 밑에 토론소설(그의 용어는 토론체소설)의 장르적 특징을 규명한다. 그에 의하면 토론소설은 구체적이고 발전적인 사건도 없고 등장인물의 성격도 없으며 배경도 사건과 인물을 지배하는 원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 비소설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중간·끝(여기서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을 원용한다)이라는 구성을 (등장인물의 단담·토론과정·인물들의 헤어짐) 갖고 있어 서사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서사 특유의 ‘장식적 반복’ decorative pattern의 형태를 취한 점과 인물설정에는 작자의 의도가 작용하기 때문에 인물설정이 결국 허구성에 바탕하고 있는 점 등으로 그는 소설 장르로 인정한다.

그의 연구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토론소설의 연원과 발생동기를 밝힌

26) 앞의 <開化期文學樣式의 問題點>.

27) 『韓國近代短篇小說研究』(형설출판사, 1979) p.34.

28) 『全光鏞 博士回甲記念論叢』(서울대출판부, 1979).

점이다. 그에 의하면 이것은 전래의 才談式 설화에 연원하며(그는 「山之高撞石故」라는 설화와 개화기 독립신문에 실린 「속담」이란 글을 예로 든다) 전래의 서사적 성격의 문학과 한문소설(각기 「要路院夜話記」, 박지원의 「虎叱」을 예로 든다)에도 영향을 받았으며 가까이는 당대 신문의 논설이 그 경직성을 피하려는 의도에서 문답형식을 취한 것도 토론소설의 형성에 영향을 끼쳤다. 재담·속담·수수께기 등 단순형태의 구전문학이 토론소설의 기록문학으로 발전되었다는 기술은 매우 주목된다.

그러나 서사구조를 김윤식처럼 처음·중간·끝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sup>29)</sup> 개념에 의하여 규정하는 것은 오류이거나 적어도 유보사항이다.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미토스 곧 플롯의 개념은 스토리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지만 이것은 엄격한 구성을 본질로 하는 극,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비극의 플롯을 가리킨 말이기 때문이다. 서사는 이런 엄격한 구성을 갖지 않는 산만성에 그 본질적 특징이 있다. 서사구조의 본질은 '병렬적' 구성에 있다.<sup>29)</sup> 오히려 '패턴'의 개념에 더 역점을 두었다면 토론소설의 서사성이 보다 타당하게 규명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패턴'은 서사 고유의 한 속성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안국선의 회의형식인 「禽獸會議錄」을 토론소설의 범주에 넣지 않는 것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sup>30)</sup>

조동일은 동물우화 형식의 토론문(「禽獸會議錄」)과 서사토론문(「소경과 안증방이 문답」, 「車夫誤解」, 「自由種」)이라 하여 토론소설의 장르문제를 다루면서 이 경우 등장인물의 성격이 창조된 경우에만 소설이라고 부를 수 있다 하여 교술장르와 서사장르를 구분하는 한 기준을 내세우고 있다.<sup>31)</sup>

토론소설이 대화라는 극적 요소가 들어 있는 것은 이 토론소설이 정치소설이라고 불릴만큼 주제적 양식이 우세한 사실과 연관된다. 『論語』와 플

29) 이 점에 대해서는 Emile Steiger, Grundbegriffe der Poetik(李裕榮·吳賢一역, 三中堂, 1978) 그리고 Albert Thibaudet, Reflexions sur Le Roman(유익진역, 新楊社간, 1950) 참조.

30) 그는 토론소설의 범주에 드는 작품으로 「향로방문의 성이타」 「소경과 안증방이 문답」, 「車夫誤解」, 「합격담화」, 「서사문답」의 5편을 들고 있다.

31) 앞의 『한국문학통사』 4권 pp. 320~325. pp. 347~348.

라톤의 『共和國』은 사상과 진리의 효과적 전달 방법으로 일관되게 대화라는 극형식을 취하고 있다. 만세보에 발표된 이인적의 「血의 淚」에도 연극대본처럼 대화자의 이름을 괄호속에 넣고 있으며(뒤에 단행본으로 나온 「血의 淚」에는 이 괄호가 삭제되어 있지만) 「雉岳山」이 ‘演劇新小説’이라는 명칭이 붙어있는 점 등 개화기 소설에 미치는 극장르의 영향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도 이런 문맥에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토론소설은 분명히 교술·극·서사가 혼합된 특수형태다. 이 경우 우리는 두 가지 장르기술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는 토론소설을 ‘장르혼합’이라는 장르변화 요인에 의하여 전통소설이 변화된 개화기의 특수한 소설유형으로 볼 수 있는 점이다. 둘째는 장르의 비순수 입장에서의 기술이다. 현대의 장르비평은 한 문학 작품에 여러 장르요소가 공존해 있다고 본다. 이 경우 그 작품의 최종적 판정은 그 요소들 중 가장 우세한 요소의 장르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된다.

### 3. 역사·전기소설

토론소설과 같이 주제적 양식이 우세한 또 하나의 유형이 역사·전기소설이다. 이 역사·전기소설에도 논설·역사·소설이라는 장르혼합의 현상이 나타나 있다.

김태준은 과거 한국 소설사에서 演義와 전기가 소설의 중심개념이 되어 있음을 기술하면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신문학으로서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개화기의 역사·전기류 소설에 주목했다.<sup>32)</sup>

그러나 역사·전기류 소설에 가장 장르비평적 접근을 한 것은 이재신이다. 그는 『韓國現代小說史』(1979)에서 개화기의 영웅·전기적 서사체에 대해 전기로 고정해 보려는 태도와 일종의 역사소설의 원초적 형태로 보려는 두가지 태도를 지적하면서 이것은 전기 자체의 이중성에서 비롯된다

32) 앞의 『朝鮮小說史』 pp. 234~237.

는 전체 밑에 역사전기문학(또는 소설)으로 명명한다.<sup>33)</sup> 그에게 개화기 역사 전기류 소설은 역사소설의 원초적 형태다. 그는 장지연의 「애국부인전」을 예로 들어 루카치와 플레이쉬먼의 이론에 따라 역사소설의 이중성을 분석한다. 그에 의하면 역사소설은 역사의 문학적 조작으로서 역사와 소설의 혼성은 역사소설의 숙명이다.

루카치는 이미 그의 『소설의 이론』에서 고대 서사시와 소설을 비교하여 개인적 서사체로서 소설의 외적 형식은 “본질적으로” 전기적 형식이라 했으며<sup>34)</sup> 『역사소설론』에서는 비극과 대비하여 소설은 후퇴적 모티브가 우세하여 사건의 진행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역사의 전개와 유사하여 ‘半예술’이라고까지 규정했다.<sup>35)</sup>

이재선은 역사소설이 가진 또 하나의 이중성은 역사적 상상력에서 찾는다. 이것은 과거와 현재를 통합하는 행위다. 다시 말하면 역사소설가는 과거 역사에 침잠하면서도 그 자신의 시대에 자기 정신을 뿌리박고 있으며 현재의 관점에서 과거를 이해하는 것이다. 그는 역사소설의 이중성 뿐만 아니라 개화기 역사·전기류 소설의 장르적 비순수에 주목하여 신채호의 「乙支文德」이나 「李舜臣傳」은 소설이라기 보다 “오히려 歷史論文에 가까운 글”이라고 기술한다.<sup>36)</sup> 이것은 역사·전기류 소설의 지배적인 주제적 성격과 장르혼합성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이 역사전기문학을 일련의 신소설로 대표되는 허구적 서사체와 대조하여 매우 간명하게 장르적 본질을 밝힌다.<sup>37)</sup> 그에 의하면 경험적 서사체인 역사전기류소설은 그 이전의 史傳과 열전계에 연관되는 데 반하여 신소설은 傳奇系에 연결되어 태도면에서 역사전기문학은 외세에 저항하는 자본적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한 저항의 문학이고 구제의 문학인데 반하여 신소설은 외세영합적이고 개화지향적이고 상업주의적인 순응문학이고 친

33) 『韓國現代小說史』(弘盛社, 1979) pp. 175~177.

34) Georg Lukács. Die Theorie des Romans(潘星完역, 심설당, 1985) p. 98.

35) The Historical Novel(Beacon Press, 1962) p. 141.

36) <開化期の 憂國小說>, 『開化期の 憂國文學』(신구문화사, 1974) p. 185.

37) 앞의 <開化期 叙事文學의 두 類型>.

일문학이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을 이끄는 것은 작가의 태도면(여기서 그는 두드러지게 표현론적 장르비평의 입장을 취한다)에서 역사전기문학을 당대의 당위적 장르로 선택할 수 밖에 없는 필연성을 내세워 개화기 소설 연구의 역점을 여기에 둔 것이다.

그에 의하면 신소설은 문명개화의 준거성·신기성을 중시하고 변화를 바라는 태도의 소산이기 때문에 새로운 실험적인 요소가 많다. 그러나 역사전기류 소설작가는 당대의 상황을 위기로 인식하며 역사의 변혁기에 새 로움 보다 안정을 취하려는 삶의 태도에서 신소설과 같은 새로움의 수용 보다는 전기와 같은 전통적인 안정형태의 양식이 필연적으로 선택될 수 밖에 없었다. 사실 傳은 우리에게 매우 낯익은 양식이고 이런 전통적인 안정형태의 고수가 바로 작사의 태도의 등가물이 된다는 것이다. 작가의 태도 와 장르선택을 연관시킨 점은 매우 설득력 있는 의미심장한 장르비평이다.

조동일은 역사의 맥락을 민족사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위대한 역사적 인물을 그 주역으로 인식하게 됨으로써 역사·전기류 소설을 당대의 필연적 산물로 보고, 이런 민족사 인식이 구국의 방책이라는 주제적 성격 때문에 교술산문으로 처리한다.<sup>38)</sup> 계속해서 그는 정통사서의 구성요소인 본기와 열전을 예로 역사의 서술과 인물의 전기는 원래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열전이 본기에 해당하는 것보다 더 자유롭게 쓸 수 있어 한문학의 한갈래로 정착되어 여기에 허구적인 요소까지 가미되게 되었다하여 전의 양식이 조선조 사회에서 크게 유행하게 된 배경을 기술한다. 이것이 개화기에는 민족사에 대한 자부심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역사적 인물의 생애를 국한문체로 서술한 역사전기류 소설로 출현되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그는 한문학의 한 장르인 전이 개화기에는 근대적인 전기로 변형되는 장르의 변화과정을 밝혀놓았다.

이재선이 바르게 지적한 것처럼 개화기 역사·전기류 소설은 역사소설의 원초적인 특수한 형태다. 오늘날 장르비평에서 역사소설은 전체성이란 소설(이 경우 대서사장르인 장편소설만을 가리킨다)의 본질적 특징을 가

38) 앞의 『한국문학통사』 4권, p. 301 이하 참조.

장 잘 구현하고 있는 소설유형으로 평가되고 있다.

#### 4. 政治小説

박은식이 번역한 역사·전기류 소설인 「瑞士建國誌」에는 정치소설이란 명칭이 붙어있다. 임화 이래 많은 연구자들은 개화기소설의 특징으로 정치소설을 거론하고 있다. 위켄의 역사소설과 정치소설의 대비적 고찰은 개화기소설을 연구하는데 유익한 관점을 제공해 준다.<sup>39)</sup> 그에 의하면 역사소설은 제재가 그다지 제한되어 있지 않고(곧 전체성) 과거에 대한 새로운 감정과 새로운 태도가 요청된다는 점에서 정치소설과 다른 차원에 놓인다. 말하자면 하나의 독립된 장르다. 그러나 정치소설은 제재가 제한되어 있고 단순히 재료에 따른 분류이기 때문에(재료의 분류가 장르의 분류가 되어버리므로) 독립된 장르로 인정될 수 없다. 정치소설은 연애소설 종교소설, 가정소설 등처럼 주제를 구현하는 재료에 따른 분류명칭의 하나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것은 형식과 구조와는 무관한 개념이다. 토론소설도 그 일부가 정치소설의 범주에 드는 것은 이 때문이다.

개화기는 개인의 운명이 정치적 용어로 기술되는 역사의 변동기다. 그러므로 개화기 소설이 띠고있는 공리성은 정치소설이란 이름으로 집약된다고 할 수 있겠다.

임화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최초로 역사소설이란 선행연구자의 용어 대신 정치소설이란 명칭을 사용했다. 그는 공문서나 경서, 신문 잡지의 논설이 아니라 史實이나 설화의 형식을 빌어(그는 이것을 정치소설이 문학이 될 수 있는 조건이라고 했다) 정치적 목적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정치소설의 의의를 부여한다.<sup>40)</sup> 이 점에서 그는 당대의 한국 정치소설이 일본이나 서구의 정치소설과 다르다고 했다. 그에게 정치소설은 정치적 목적

39) Austin Warren & René Wellek, The Theory of Literature(백철·김병철 공역, 신구문화사, 1959) p.320.

40) 앞의 『新文學史』 제3장 참조.

을 소설의 형태로 표현한 내용 중심주의 문학이며 사상성이 강조된 문학이다. 목적문학으로서 개화기 소설의 성격을 최초로 정치소설로 규정된 것은 뒷날의 개화기문학 연구에 한 증거체가 되었다. 이재선도 개화기의 역사·전기류 소설이 자보적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한 저항문학이란 점에서 이것이 정치소설적인 이념성이나 政論性을 지니고 있음을 역설했다.<sup>41)</sup>

송민호의 『韓國開化期小說의 史的 研究』(1975)에서는 이 정치소설이 독립된 한 장르로 처리될만큼 중요시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전형적인 정치소설이 되지 못하고 조선말기의 정치적 변형에 수반된 사회현상을 제재로 한 소설류란 근거에서 ‘정치소설’이란 용어 대신 ‘政治類小說’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sup>42)</sup> 정치성은 개화기의 사회생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정치소설은 조선말기 사회상의 일반적 성향을 대변한 점에서 당시 “모든 小說의 作品背景”이 된다. 다시 말하면 개화기 소설의 주제인 자주독립사상·개화사상·봉건적 유교정치에 대한 항거 등은 정치와 직접 관련되어 있어 개화기소설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정치성의 역할을 모두 맡아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政治思想이 支配的으로 作用했거나 또는 그런 環境에서 政治에 관련된 이야기가 優勢한 作品”이라고 정치소설의 한계를 설정한다.<sup>43)</sup> 이 부류에서 역사·전기류 소설과 토론회 소설의 두가지 유형의 소설들이 포괄된다(그러나 그는 후자의 작품만 분석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이 정치소설은 개화기 소설 중 “過渡期的 性格”이 가장 농후한 작품이다.<sup>44)</sup>

그가 역사의 변혁기에 필연적으로 대두되기 마련인 정치소설의 본질을 밝히고 비중을 강조한 점은 타당했다. 정치소설과 함께 개화기 소설의 주제문학의 한 형태인 公案類小說을 사건소설로서의 성격을 지닌 점에서 소설의 한 유형으로 인정한 것은 주목된다(물론 송사를 제재로 권선징악의

41) 앞의 〈開化期 敘事文學의 二 類型〉.

42) 『韓國開化期小說의 史的 研究』一志社, 1975) pp. 176~177.

43) 앞의 책, p. 179.

44) 앞의 책, p. 177. 그는 개화기 소설을 章回小說의 한문소설로 대표되는 구소설적 잔영으로서의 소설과 신구소설적 요소의 과도기적 성격의 소설과 신소설로 3분하고 있다.

유교적 윤리관을 내세운 공안류 소설을 이재선을 비롯한 다른 연구가들에 의해서도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소경과 안증방이 문답」, 「車夫誤解」, 「自由鍾」 등의 정치소설이 플랫폼개가 불충분하여 소설로 보기 어렵지만 “對話를 통한 敘述性”만으로 소설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는 견해는 용납될 수 없다. 지문이 거의 없고 대화로 전개되는 이들 작품들은 차라리 극적인 성격을 농후하게 띠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어조의 「禽獸會議錄」을 정치소설로 인정하면서도 앞의 세 작품에 비해 신소설적 요소가 우세하다고 하여 과도기적 성격의 세 작품과 구분한 것도 남득이 가지 않는다.

김윤식은 임화나 송민호처럼 비교문학의 관점과 사회·역사적 비평관점에서 정치소설에 접근한다. 그에 의하면 한·중·일의 개화기에 나타난 정치소설에 관계 없이 정치소설이란 “장르概念이기 보다 그 上位概念인 思想的 측면”이라고 하여 소설의 한 독립된 장르로 인정하지 않는다.<sup>45)</sup> 물론 정치소설이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제재에 따른 분류명칭이다. 그는 일본 명치시기의 정치소설이 당대 자유민권 운동의 배경으로 성립된 소설이라는 정의에 따라 역사적으로 정착된 특징 명칭이라 하면서 정치사상이나 정치적 환경이 지배적 배경을 이루는 소설이라는 어빙·하우의 정치소설 일반개념과 구분한다. 요컨대 한·중·일의 정치소설은 똑같이 개화기라는 특수한 정치적 변혁기에 한정된, 문학사적 의의를 가진 소설이 된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개화상황이 정치소외에서 출발되었기 때문에, 다시말하면 한국의 지식인이 권력을 쥐어 정치적 포부와 경륜을(그는 이것을 정치소설의 핵심이라한다) 발휘할 수 없는 상황적 제약성 때문에 중국과 일본과는 달리 정치소설의 성립은 처음부터 불가능했다고 주장한다. 정치소설과 사회역사적 상황을 상응시킨 점은 타당했고 유익한 관점이다. 그러나 그의 논법대로라면 정치소설은 정치적 변혁이 자율적으로 전개되는 상황, 더 구체적으로 정치소설의 작가가 “권력을 쥐어” 변혁의 주체가 될 때만 가능하다. 개화기 정치소설도 역사와 토론과 우화와 풍자의 형태로 실존한 것이다. 그는 어빙·하우의 일반적 개념으로 정치적 소설을 보

45) 앞의 〈開化期文學樣式의 問題點〉

지 않고 문학사적 관점과 사회·역사적 비평의 좁은 관점으로만 보고 있다. 차라리 당대 외세의 억압이라는 한국사의 특수성으로 인해 한국지식인이 국권회복의 지사적 성격으로 경도된 나머지 새로운 정치이념 곧 개화사상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정치소설의 성립이 어려웠다는 주장을 강조했다면(그도 이점을 간과하지 않는다) 더욱 설득력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정치소설이 장르개념이 아니라 그 상위 개념인 사상적 측면이란 진술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장르와 사상을 난데없이 비교한 것도 이상하지만 사상을 장르의 상위개념에 둔 것은 더욱 납득되지 않는다. 아마 장르를 형식개념으로 보고 형식보다 사상에 비중을 더 둔 태도에서 나온 견해가 아닐까 한다. 사실 정치소설에서 중요한 것은 소설의 형식보다 사상 곧 정치사상이고 이 정치사상 때문에 정치소설로 불려지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 의미의 장르와 사상을 비교하는 것은 오류다.

정치적 이념이 지배적 역할을 하거나 혹은 정치적 환경이 지배적 배경을 이루는 소설이 정치소설 political novel이라는 어빙·하우의 정의는 확실히 구별적이다.<sup>46)</sup> 이런 장르적 조건 때문에 소설자체보다 정치적 이데올로기나 소재에 비중이 가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것은 주제적 문학의 중요한 유형이다. 개화기의 정치소설도 사회·역사적 배경보다 장르비평의 관점에서 보다 본격적으로 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개화기 정치소설이 소설로 성립되기 곤란하다면 그것은 정치적 이데올로기나 소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서사구조로 충분히 형상화되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는 것이다. 토론소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작중인물의 대화·토론이 행위가 되지 못하고 의미가 되어버린 상태가 개화기 주제적 문학으로서 정치소설의 정체다.

##### 5. 新小說과 모방론

이런 주제적 문학의 반대편에 신소설이 놓인다. 이 경우 신소설은 ‘허

46) 『政治와 小說』(김용권역, 범문사, 1960) p. 10.

구성'이 그 본질적 특징이 된다. 다시 말하면 신소설은 허구적 양식으로서 문제되는 것이다. 이런 신소설은 이인직의 작품으로 대표된다. 따라서 신소설의 의의와 한계는 이인직 작품의 그것으로 충분히 기술된다. 지금까지 개화기 문학 연구자들은 고대소설과 비교해서 신소설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왔다.<sup>47)</sup> 이 중에서 임화의 신소설론은 모방론적 장르비평으로서 가장 눈길을 끈다.<sup>48)</sup> 그는 우선 구소설과 구별되는 신소설의 결정적 특징으로 리얼리즘을 든다. 사실 근대소설은 리얼리즘 소설이므로 이런 그의 기준은 매우 타당하다. 여기서 리얼리즘이란 구시대소설처럼 과거의 배경·인물·사건이 아니라 '지금 여기'의 삶을 반영한 것, 곧 신소설이 개화기 당대의 삶을 반영한 거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모방론적 입장에서 그는 신소설이 점점 붕괴, 해체되어 가는 과정에 놓인 조선의 봉건적 모습을 반영하는 것을 그 당위성으로 지적했다. 실제로 신소설은 구시대상과 인간상을 개화기의 새로운 세계와 인간상보다 더 집중적으로 묘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세력이 몰락하는 비극적 존재로 그려지지 않고 오히려 봉건세계의 막강한 세력에 무참히 유린당하고 고통받는 개화세계의 수난사로 되어있는 점을 모든 신소설의 근본적이고 공통적인 결함으로 그는 비판한다. 그 결과 신소설은 리얼리즘이 아니라 개화세력이 수난 끝에 궁극적으로 승리하고 이것을 약속하는 아이디얼리즘이 그 기본 색조가 되고 구조원리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이것을 당대 신소설 작가 의식의 결여나 역사관에 기인한 것으로 본다. 다시 말하면 신소설 작가는 봉건세력이 몰락하고 개화세력이 역사의 새로운 계층으로 부각되어가는 역사의 필연적 방향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47) 언문일치, 사실성과 묘사성을 비롯하여 작품 冒頭 부분의 파격성, 사건의 순행적 진행의 파피, 개화사상의 주제 등이 신소설의 특징으로 기술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조운제, 『國文學史』(동국문화사, 1949), 백철 『國學文余史』(신구문화사, 1957), 조연현의 앞은 책 『韓國新文學考』, 전광용 <韓國小說發達史 下> 『韓國文化史大係』 10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67), 송민호의 앞의 책 『韓國開化期小說의 史的 研究』 등이 있고 문예학적으로 분석한 이재선의 앞의 책 『韓國開化期小說研究』 및 <開化期敘事文學의 二類型과 三세 類型>이 있다.

48) 앞의 『新文學史』, 제3장 4~5회분.

봉건세력이 어쩔 수 없이 몰락해 가는 과정을 묘사하는 것이 그에겐 구소설과 구분되는 리얼리즘이고 이것이 신소설의 구조원리가 되었어야 했다.

그의 이런 비판은 비록 그 이론적 배경을 밝히지 않았지만 마르크스주의자로서 루카치의 역사소설론에 의존한 것이다.<sup>49)</sup> 루카치는 소설과 극의 장르적 차이를 분석하는 자리에서 상승하고 하강하는 사회의 점진적 발전 경향(예컨대 봉건귀족계급이 몰락하고 부르주아계급이 역사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역사의 전개방향과 과정)을 묘사한다는 점에서 위대한 소설은 “근본적으로 역사적”이라고 기술했다.<sup>50)</sup> 여기서 장편소설의 본질인 총체성을 반영하는 리얼리즘도 확보되는 것이다.

임화에 의하면 개화지향적 인간은 선인이고 봉건세력은 악인으로(그는 선·구의 대립을 선·악의 대립으로 대치한다) 설정함으로써 신소설의 성격창조에 있어 구소설처럼 인물을 전형화하지 못하고 유형화한(곧 구체적 개인의 의미가 상실되고 추상적이고 보편적 의미만 띤) 점이든가 부자·처첩·적서·교부 등 「장화홍련전」을 비롯한 구시대 가정소설류의 전형적 갈등구조인 가족간의 대립이 그대로 신소설의 갈등구조로 되어 있는 점도 작가의 역사의식 결여에 기인한다. 그리하여 그는 신소설의 리얼리즘이란 결국 “部分的 局部的 리얼리즘, 트리비얼리즘임을 뿔치 못한다”고 결론짓는다.

물론 그는 부분적 리얼리즘이나마 확보한 점, 봉건사회의 모순과 부패를 폭로하고 정확히 묘사하고 개화사상을 나타낸 것을 신소설의 의의로 높이 평가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그러나 개화기의 소설이 개화의 새로운 세계에 대한 전망보다도 몰락하는 비극적 존재로서 구세력에 쫓겨맞아 죽어갔어야 했다는 당위론을 주장하고 따라서 작가는 역사의 필연적 전개방향을 인식해야 하며 소설은 근본적으로 역사적이라는 명제를 시사하면서 소설을 비판한 것은 탁월한 장르비평이 아닐 수 없다.

49) 이것은 그가 30년대 일련의 로만개조론을 발표할 때 이미 루카치의 이론에 근거하고 있었던 사실에 근거한 판단이다.

50) 앞의 The Historical Novel 제2장 참조.

임화처럼 루카치에 많은 영향을 받은 김윤식이 신소설을 부정했을 때 그도 임화처럼 모방론의 입장이었다. 그에게 가부장제적 가족관계, 축첩의 관계를 다룬 신소설의 작품세계는 그대로 고대소설의 작품세계였다. 그는 이것을 개화의 새로운 정치이념을 펼칠 정치소설이 불가능한데서 온 필연적 소산으로 해석한다.<sup>51)</sup> 그리하여 그가 “開化期小説이라 할 때 장르概念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라고 선언했을 때 이것은 신소설의 서사성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신소설의 ‘신’ 곧 역사적 장르로서의 신소설을 부정한 것이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신소설은 개화의 물결에 헤쳐되지 않고 고대소설의 모습을 그대로 지닌 장르의 견고성을 보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開化期小説이 하나의 文學장르로 定立되어 있었다”라는, 앞의 진술과 분명히 모순되는 진술은 이런 문맥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이런 그의 역설도 순전히 모방론의 입장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신소설은 모방론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신·구의 양면성을 띠고 있으며<sup>52)</sup> 구조론적 입장에서 현저한 변화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는 신소설의 ‘변화’를 간과하거나 낮게 평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같은 모방론의 입장을 취했지만 소설은 근본적으로 역사적이라는 명제를 암시한 임화의 장르비평이 김윤식의 역설적 장르비평보다 더 설득력이 있다.

51) 앞의 〈開化期文學樣式의 問題點〉

52) 이런 양면성에 대하여는 조동일이 〈新小説의 文學의 性格〉(『한글문화연구총서』 14권, 한국문화연구회, 1973)과 〈소설사의 전체적인 전개에서 본 신소설〉(『新文學과 시대의식』, 새문사, 1981)에서 자세히 논하고 있다. 그는 판소리계 소설과 신소설을 비교 대조하여 전자가, 민중의 문학이면서 양반의 호감도 사야하기 때문에 보수적인 표면적 주제(양반의 관념)와 진보적인 이면적 주제(민중의 경험)의 이중성을 갖는 반면 신소설은 개화사상을 역설하는 교술적 소설이면서 흥미분위의 통속소설이라는 이중의 부담으로 표면적 주제가 진보적이고(개화사상) 이면적 주제가 보수적인(흥미로운 사건) 이중성을 띠었다고 기술한다.

## 6. 장르혼합

개화기는 상황과 의식의 변화에 상응하여 문학의 변화가 일어난 시기다. 통시적으로는 신·구의 요소가 공존하고 공시적으로는 다른 장르적 요소들이 공존하는 장르혼합의 양상을 지니고 있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일부 신소설 작품을 제외하고 당대의 소명의식에 압도되어 개화기 문학이 시가든 소설이든 주제문학의 극단을 보이고 있어 문학과 비문학의 경계선이 모호해진 점 등으로 개화기 문학은 문체적 문학이며 그만큼 장르비평적 접근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런 개화기 문학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이재선·김윤식·조동일 등 일부 연구자들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주로 문학사적 관점에서 접근했고 장르이론도 결핍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장르분류와 전개양상, 그리고 명칭에 있어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문학의 변화는 장르의 변화에 해당하므로 그 변화요인이 분석의 도구로 등장하기 마련인데 무엇보다 장르외적 요인 못지 않게 공시적이든 통시적이든 장르들 상호간의 관계에 나타나는 장르내적 요인들이 장르비평에 요청되는 것이다. 개화기 문학의 변화는 이런 관점에서 더욱 천착되어야 할 것이다.